

# 한국어와 불어 상호 번역과 관계된 사유패턴의 특성

## - 사상(四象) 이획괘의 비교언어학

오정민\*

### 序言

봉우 권태훈 선생과 이재형 선생께 사사하고 캐나다에서 생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인 fMRI 연구로 침의 기전을 연구했으며 한의학과 양의학이 결합된 치료법도 연구한 이성환 교수가 김기현 한의학 박사와 공동으로 집필한 『주역의 과학과 도』에서는 물리학자들과 구도자들의 공통적 관심사가 ‘우주만물의 공통적 패턴을 찾는 것’임이 언급되어 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찾기 위해 식음을 전폐할 때도 있고 구도자들은 이것을 화두로 삼아 수행에 정진한다. 이들의 다른 점은 자신이 발견한 패턴을 전자는 數式으로 후자는 음양오행이라는 부호로 표현한다는 것뿐이다. 아인슈타인이 ‘역경은

---

\* 추계예술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우주의 원리를 표현하는 대수학 책'이라 했듯이 역경은 득도한 구도자들이 道의 패턴을 디지털 코드로 도시(圖示)한 책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sup>1)</sup> 그렇게 “우주 만물의 원리인 道를 음양이라는 디지털 부호로 도시한 책”인 역경의 내용은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의 변화 패턴만이 아니라 소립자의 세계나 몇 억 광년 떨어진 별에 사는 미물들에게도 적용되는 공통패턴을 도시하고 있다.”<sup>2)</sup>

같은 내용이 한국어로 표현될 때와 불어로 표현될 때 각 언어가 보이는 표현양상의 차이에서 우리는 사유방식의 차이-보다 정확히는 대립성-를 들추어낼 수 있다. 그 사유방식의 패턴은 예컨대 각 언어의 ‘문장구조상의 순서라는 형식’과 마찬가지로 ‘사고의 방향성에서 파생되는 내용’ 면에서도 번번이 그리고 완전 반대일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우주의 만물과 모든 현상에 작용하는 음양의 법칙을 논하되 그런 맥락에서 불어와 한국어 표현의 대칭성을 구체적인 문법 요소와 문장 구조, 단어의 의미장(champ sémantique)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불어와 한국어 사이의 대립성은 단지 음양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효<sup>3)</sup>(二效)로 이루어진 네 개의 성격 즉 사상으로 구분되어 정의될 수 있음이 밝혀질 것이다.

1) 이성환, 김기현 (2006). 주역의 과학과 도. 서울: 정신세계사, 5.

2) 위의 책, 25.

3) 두 개의 획 자리에 음이나 양이 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괄. 본론에서의 [그림1]과 [그림2]의 괄가 그것이다. 태극이 분화된 음양은 각각 음효 하나와 양효 하나로 표시되는데 음과 양 각각이 다시 음 안의 음/양, 양 안의 음/양으로 분화하면 태음, 소음, 태양, 소양의 四象이 된다. 이 때 넷으로 분화된 태음, 소음, 태양, 소양은 각기 두 개의 효로 표시된다. 사상의 괄 각각이 또 다시 양음으로 2수 분화를 하면 세 개의 효로 이루어진 여덟 개의 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태극에서 양의가 나오고 兩儀에서 사상이 나오고 四象에서 팔괘가 나오는 데에는 제일변 음양, 제일변 사상, 제삼변 八卦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석진 (1999). 대산 주역강의 상經. 서울: 한길사, 82}

## 본론

기원전 4700여 년 전<sup>4)</sup>, “언어소통이나 의사전달이 잘 안되고 문자도 없었던 선사시대<sup>5)</sup>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왕인 복희씨가 천, 지, 인을 형상한 부호로 8괘를 그렸다고 한다. 이것이 역경의 시초인데 그로부터 3500년 후<sup>6)</sup> 주나라 문왕은 8괘의 3효를 중첩하여 64괘를 만들고 각 괘를 이치에 맞게 설명하였다고도 한다. 그후 문왕의 셋째아들 주공이 64괘에 들어 있는 384효 하나 하나에 대해 모두 글(효사)로 설명하였으며 이로서 주나라 시대에 완성된 역경이라 하여 주역이라 부른다는 설이 있다.<sup>7)</sup>

우주만물이 있기 이전의 공허하고 혼돈했을 상태를 태극<sup>8)</sup>이라고 하고 태극이 양의(음양이라는 두 가지 모습)를 낳고 그 兩儀는 또 四象(소양, 소음, 태양, 태음이라는 네 가지 형상)을 낳고 사상은 또 팔괘(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을 낳는다.<sup>9)</sup> 우리는 본론의 논의에서 이러한 음양의 성질을 바탕으로 불어와 한국어 표현양상을 살펴본 후 나아가 4상의 2효 괘로까지 분화시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그것은 만물에 작용하는 역경의 원리가 언어현상에도 예외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는 작업이 되며 “주역은 스스로 철학적인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sup>10)</sup>는 언명과도 통하는 연구가 된다.

### 1. 음양과 사상(四象)

#### 1. 1. 음양이란

4) 고회민 (1978). 대역철학론(大易哲學論). 정병석(鄭炳碩) 옮김 (1996). 주역철학의 이해. 서울: 문예 출판사, 17쪽.

5) 김석진 (1999). 28.

6) 고회민 (1996). 228.

7) 김석진 (1999). 38-39.

8) 위의 책, 62.

9) 위의 책, 64.

10) 고회민 (1996). 26.

이성환, 김기현은 “태극이 양의(兩儀), 곧 음과 양을 낳고, 태극이 움직이면 양이 되고 고요해지면 음이 된다.”는 주역의 설명에 따라 “만물의 근본이자 천지의 도인 음양”을 이해하려면 그것들이 짝을 짓고 대립하는 특징에 대한 일반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sup>11)</sup> 그리하여 음의 특성인 ‘비활동적이고 어둡다, 차다, 무겁다, 두껍다, 탁하다, 소극적이다, 농후하다’에 각각 반대되는 양의 특성으로 ‘활동적이고 밝다, 뜨겁다, 가볍다, 얇다, 맑다, 적극적이다, 희박하다’ 등을 들고 있다. 우주의 모든 현상은 이렇듯 대립된 성질의 음이나 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 중 특히 우리의 언어분석에도 적용될 특질을 중심으로 정리하자면 다음 [표 1]과 같다.<sup>12)</sup>

[표 1]

음	양
구심력 (원의 중심방향으로 작용)	원심력 (구심력과 반대방향, 즉 원의 바깥방향으로 작용)
안 (내부), 닫힘 / 흡입	밖 (외부), 열림 / 폭발
전(前), 후퇴/ 복, 서	후(後), 전진/ 남, 동
수렴~에너지가 수렴되어 물질화 하는 작용 하강, 휴식, 밤	분출~물질이 분해되어 에너지화 하는 작용 <sup>13)</sup> 상승, 행동, 낮
보이지 않는다. 단단하다.	보인다. 유연하다.
女, 정(靜) - 고요하다, 수동적	男, 동(動) - 움직이다, 능동적 <sup>14)</sup>
음인~침착해 보인다, 느린 걸음, 느린 결정 동양인	양인~날쌔 보인다, 빠른 걸음, 빠른 결정 서양인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표1]의 맨 마지막 행이다. 서양인은 양인의 성질이 강하고 동양인은 음인의 성질이 주가 되는데 과연 서양인

11) 이성환, 김기현 (2006). 91.

12) [표 1]의 내용은 모두 ‘위의 책, 91-93’에 의한 것이다. 그 외 표 안에 각주로 표시된 음양의 특질은 출전을 따로 밝혔다.

13) 위의 책, 120-121.

14) 김석진 (1999). 67.

이 사용하는 불어, 동양인이 사용하는 한국어 각각의 문법이나 표현양상에도 음과 양의 특성이 숨어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겠다. 그러나 일단 불어는 양의 언어이고 한국어는 음의 언어라는 사실이 우리의 분석의 기본이 되며 이에 대한 증명은 II. 1. 장의 내용을 이룬다.

### I. 2. 四象이란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지 음양의 대립적 특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2수 분화한 사상의 특성으로까지 나아간다. 그리하여 이회괘의 사상을 중심으로 II. 2. 장에서 단어 사용과 구문, 문장 구조 등을 중심으로 각 언어체계의 음양 특성을 사상을 중심으로 분석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사상에 대한 대략적 개념이 필요하다. 사상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예로는 동서남북, 상하좌우, 희로애락, 이목구비, 四肢, 산천초목, 일월성신, 4계절 등 얼마든지 있다. [표1]의 음양 구분에 따르면 북, 서는 음이며 남, 동은 양이다. 그런데 음이 음양으로 분화한 결과 북은 소음이 되고 서는 태음이 된다. 마찬가지로 양이 양음으로 분화한 결과 동이 태양이 되고 남은 소양이 된다. 그러므로 동서남북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 사상의 원리를 담고 있다. 4계절의 경우 역시 활동이 시작되어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봄은 태양(동), 양의 활동이 극에 달해 음이 시작되는 여름은 소양(남), 음의 기운이 왕성한 태음은 가을(서),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해 양이 시작되며 수렴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겨울은 소음(북)에 해당된다. 四肢에서도 활동성이 제일 왕성한 오른팔이 소양, 그 다음 왼팔이 태양, 오른 다리는 태음, 왼다리는 소음이 해당한다.<sup>15)</sup>

15) 이 외에도 이성환, 김기현은 빛과 소리, 색깔, 미술, 우주의 구성 요소, 인체, 성격, 체질, 생리 기능, 정신상태, 물리, 경제, 도형, 동물계, 식물계 안에 어떤 요소가 태음, 소양, 태양, 소음인지를 짚어내고 있다. {이성환, 김기현 (2006). 225-290.} 본 논문은 이에 영감을 받아, 그러한 분석력과 직관을 언어에 적용한 것이다. 즉 음양과 사상이란, 접근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의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 일상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 원리인 것이다.

[표 2]<sup>16)</sup>

	태양(太陽)	소양(少陽)	태음(太陰)	소음(少陰)
계절/절기	봄/춘분	여름/하지	가을/추분	겨울/동지
작용/인생	생/소년기	성장/청년기	수렴/중년기	저장/노년기
정치	수정 공산주의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공산주의
감각기/光	耳/赤光	目/白光	鼻/淸光	口/黑
컴퓨터	입력장치 (키보드)	계산장치 (CPU)	출력장치 (프린터)	기억장치 (메모리)
증권/스포츠	활황/야구	천장/농구	불황/축구	바닥/골프
방위/위치	동/좌	남/우	서/상	북/하
우주4력	강력	전자기력	미력	중력
화학/감정	약산성/怒	산성/喜	약알칼리성/哀	알칼리성/樂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陽의 언어인 불어 안의 어느 표현이 陽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양/음으로 더욱 세분화되어 정의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태양, 소양의 표현에 해당될 것이고 陰의 언어인 한국어 중 어느 표현이 陰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음/양으로 더욱 세분화되어 정의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태음, 소음의 표현에 해당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양의 성질에 속하는 불어 안에서 어떠한 표현이 태양과 소양에 해당하는지, 음의 성질에 속하는 한국어 안에서 어떠한 표현이 태음, 소음에 해당하는지, 아울러 어떤 기제에 의하여 그렇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 예문을 통하여 밝히는 부분이 II. 2. 장이다.

## II. 한국어와 불어의 대립성

### II. 1. 한국어와 불어의 陰陽

#### II. 1. 1) 문장구조 순서의 음양 대립성-앞과 뒤, 전진과 후퇴

불어에서 어떠한 문장을 택하여 한국어로 옮겨보면 문장의 맨 뒤에서부터 시작하여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해석해야 한국어 문장이 되

16) 우주의 만물을 사상으로 나누어 본 이 표는 ‘이성환, 김기현 (2006). 225.’를 참조하였다.

는 경우가 많다.(주어 제외) 이것은 전진과 후퇴, 앞과 뒤, 전과 후([표 1] 참조)가 서로 대립되는 음양의 특성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예이다.<sup>17)</sup> 이점은 불어와 한국어 전체에 큰 비중으로 적용되는 음양의 특성이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Ils étaient apparus comme dans un rêve [...]”<sup>18)</sup>를 한국어로 옮기면 “그들은 꿈속에서처럼 나타났었다.”로서, ‘그들은’이란 주어를 제외하면 불어에서 맨 마지막인 ‘꿈(un rêve)’→ ‘속에서(dans)’→ ‘처럼(comme)’→ ‘나타났(apparus)’→ ‘었다(étaient)’의 순으로, 불어의 문장 맨 뒤에서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해석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어와 불어 사이에 매우 전반적이고도 특징적인 현상이다. 주어를 제외하고, 한국어 문장에서 맨 먼저 말하는 개념을 불어에서는 맨 뒤에 놓는 방식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보자. “Ceux qui s’assemblent se ressemblent.”<sup>19)</sup>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으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정도이다. 그러나 그것의 불어표현은 어떤가. 해당 불어문장을 한국어로 직역하면 “모인 사람들은 서로 비슷하다.”<sup>20)</sup>가 된다. 내용은 결국 같은 것을 말하고자 함에도, 그 표현 방식 상 ‘모이다’란 개념과 ‘서로 비슷하다’란 개념의 위치가 문장구조상 전후가 뒤바뀐 순서로 사용되는 것이다.

## II. 1. 2) 같은 내용에 대한 다른 단어 사용과 관련된 음양 대립성-정(靜)과 동(動)

“Le droit de posséder des biens et d'en jouir **constitue** la base de tous les autres droits.”<sup>21)</sup>에 대한 한국어 표현은 “재산을 소유하고 향유할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의 기초이다.”가 된다. ‘constituer’ 동사의 사전적 의미에 충

17) 그러므로 전체의 특성을 보이기 위해 방대한 언어자료를 일일이 들 필요는 없다. 이후에 제시되는 음양 대립이나 사상의 다른 범주들에서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의 특성이 어김없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증명할 만한 다른 예문들이 많은데 지면상의 제한으로 여의치 않다. 또한 음양론의 다른 범주 하에 후속편도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다.

18) Le clézió, J.M. (1980). Désert. Paris: Gallimard, 9.

19) <https://www.franceculture.fr/emission/la-grande-table-idees/qui-sassemble-se-ressemble>

20) 한국어로 이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 되고 만다.

21) <https://www.linguee.fr/francais-anglais/traduction/constitue-ta+base.html>

실하겠다고 “기초를 구성한다.”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한국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직역이다.<sup>22)</sup> 그러한 직역이 왜 어색한지를 분석해보면 곧바로 한국어는 음의 언어, 불어는 양의 언어임이 드러난다. 같은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 불어에서는 ‘구성하다’ 나아가 ‘설립하다, 조직하다’의 능동적, 동적 행위(陽)를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한국어에서는 ‘이다, 되다’의 수동적, 정적 상태(陰)를 전달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이다. 그나마 ‘constituer’라는 원어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한국어로도 무난한 번역은 ‘이룬다’ 정도이다. 그러나 이 동사는 한국어에서 위의 ‘이다, 되다’에 비해 사용 빈도나 적절함이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 경우 불어에서 많이 쓰이는 ‘constituer’를 의역한 한국어의 ‘이다’를 다시 불어로 옮길 때, 직역하여 ‘être’로 하면 불어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사용법이 된다. 그 중간은 ‘correspondre à’ 정도가 될 것이다. 즉, 음의 언어에서는 ‘이다>되다>이루다’(능동성이 강해지는 순서)의 순으로 적절성이 떨어짐에 비해 양의 언어에서는 바로 그 순서로 적절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역시 정과 동 외에도 후퇴와 전진, 감소와 증가의 음양적 대립성이 한눈에 드러나는 대목이다. 즉, 같은 의미(태극)를 전달하기 위하여 양의 세계와 음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반대 성격의 단어를 택하는 것이다.<sup>23)</sup>

이와 같은 범주의 다른 예로 ‘avoir(행위)/être(상태)<sup>24)</sup>가 있다.<sup>25)</sup> 이 역시

22) 그것은 다음의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Ce projet constitue la base d'un accord large.”에 대한 한국어 표현은 “이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합의의 기초가 된다.”이다. ‘constituer’ 동사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겠다고 “광범위한 합의의 기초를 구성한다.”라고 직역하면 매우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23) ‘constituer’ 외에도 ‘consister à’ 역시 같은 예에 속한다.

24) On a (suffisamment de)le temps. / 시간이 있다(많다). 여기서는 주체중심(on)객체 중심(시간 이)의 대립성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25) 참고로, 불어에서는 색채를 표현할 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씀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동사 형태로 취급한다.(être bleu->파랏다) 즉 불어에서처럼 상태(속사)와 동작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성향이나 성격을 띠는 것 역시 자신의 행동의 결과라는 동양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이다. 행동의 결과인 물질성과 상태로 대표되는 파장성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현대 양자물리학과 합류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 주제는 다른 지면을 빌어 얻

양 언어에서 전체성을 담보할 정도로 빈번히 사용되며 필요불가결한 기본 동사이므로 일일이 예문을 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 예로, “시간 많아요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미나 상황에서 하는 말)”라는 한국어 표현에 대한 불어의 등가번역표현은 “Vous avez le temps.”이지 “Il y a beaucoup de temps”이 전혀 아닌 것이다. 즉 같은 상황(인 태극)을 표현하기 위하여 양의 언어에서는 행위동사인 avoir를 인칭주어와 같이 사용하며 음의 언어에서는 주어 없이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불어에서는 타동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행위와 그 대상의 중요성) 한국어에서는 자동사가 대부분이거나 타동사라도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목적어가 생략되더라도 문법상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나 대상을 그리 크게 강조하지 않는 무화(無化)의 사유방식이 언어행위로 결정화(結晶化)된 예이다. 여기서도 陽의 ‘행위’와 陰의 ‘상태’의 대립성이 두 언어체계에서 ‘동사’ 사용의 본질적 차이로 두드러진다. 그것은 (행위의 대상이) ‘보인다/보이지 않는다’의 대립성이기도 하다.

## II. 1. 3) 같은 단어의 공시(connotation)적 함축내용의 음양 대립성—긍정적 함의, 부정적 함의

본 장의 논의는 위 II. 1. 2)장과 반대로, 같은 단어가 다른 내용(반대의 내용)을 함의하는 범주이다. 대표적으로 ‘regretter’와 ‘후회하다’의 단어를 비교해 보자. ‘regretter’의 사전적 의미는 “Éprouver l'absence ou la disparition de quelqu'un, quelque chose comme un manque pénible, douloureux: Regretter ses amis disparus.”<sup>26)</sup> 이거나 “Quelqn'un regrette quelque chose: Éprouver

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어로는 ‘가난하다’가 불어로는 ‘être pauvre’로 쓰이는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즉 양의 언어인 불어에서는 상태동사와 속사로 비교적 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을 (곧 물질성) 동양어에서는 반대로 그것이 아무런 현 상태를 나타내는 정적, 물질적 처지라 하더라도 그러한 물질성이 바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파랗다’는 동사와 가까운 문법적 형식으로 표현한다.

26) www.larousse.fr dictionnaires francais regretter

de la peine, du déplaisir à la pensée ou au souvenir d'une perte, d'une absence d'un bien, ou au souvenir d'un mal.”로서 ‘이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는 어떤 것을 아쉬워하다.’가 주가 된다. 그만큼 각 사전적 정의에서도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다<sup>27)</sup>. 반면 한국어로 ‘후회하다’는 ‘자신이 어떤 잘못된<sup>28)</sup> 점을 후회하다.’이다. 이 때 후회하는 대상은 부정적인 것, 주체가 인정 안하는 것이다.

반면 불어로 “Je ne regrette rien.” 하면 어떠한 면이건 (내가 훌륭하게 충족시켰으므로 “여한이 없다.”는 뜻이지 한국어 식대로 아무것도 후회 안한다는 의미의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후회하는 대상의 함의가 불어에서는 미련을 둘 만큼 긍정적인 것, 한국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인 것이 근본적 이유이다. 이렇듯 한국(극동)과 프랑스(극서)의 지리적 대척성은 같은 단어를 두고도 전혀 반대의 뜻을 함의하는 언어현상으로 물질화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완전 반대의 내용을 두고 같은 부류의 단어를 쓴다는 말도 된다.<sup>29)</sup>

이와 같은 범주의 예로 ‘concession’(한국어에서 ‘양보’는 긍정적 의미이다/불어로 concession은 ‘타협’이나 ‘포기’<sup>30)</sup>의 부정적 함의가 강하다),

27) 물론 “Elle regrette ce qu'elle a dit.”에서는 ‘뉘우치다’는 의미가 되지만 ‘regretter’ 동사의 ‘어떤 미련을 갖다’라는 의미는 적어도 ‘후회하다’라는 한국어 동사에는 전혀 없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뜻으로 바뀐다.

28) 그러므로 한국어에서는 ‘자신이 잘못된 점’이 후회대상이고 불어로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일이 잘못된 점’이 후회대상이다. 한쪽에서는 능동적 의미가, 다른 쪽에서는 수동적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이다. 즉 능동과 수동, 사람과 사물이 서로 대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9) ‘같은 단어가 프랑스나 한국이나에 따라 반대의 뜻을 내포하는데 그것은 거꾸로 말하여 반대의 내용을 두고 같은 단어를 쓰는 현상’에서 우리는 陶場의 상호轉化의 법칙(이성환, 김기현 (2006, 94)을 연상하게 되기도 한다. 음양은 항상 서로 뒤바뀌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역경의 易은 ‘바뀔 역’자임”이 의미를 발한다. 또한 이 부분에서 태극 인의 음양이 서로 꼬리를 물고 순환하는 그림이 연상된다면 이 역시 상호전화의 의미를 터득한 것이 된다. (지면상의 제한으로 자세한 분석은 삼간다)

30) “Abandon d'un avantage, d'un droit, d'une prétention : Au prix de nombreuses concessions il a réussi à se maintenir au pouvoir.(거듭된 권리포기의 대가를 치른 후에야 그는 비로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www.larousse.fr dictionnaires francais concession) 또한 성적욕망에 대한 대중적 반발에 이질러가 타협함을 비난하는 글에서 프로이트는 이 ‘concession(원뜻은 ‘양보’이지만 그 의미는 ‘타협’이란 부정적 공시 쪽으로 향하고 있음)’이

‘complaisant’(상대에 대한 배려나 호의는 한국어에서는 긍정적 공시임/ 불어에서는 그 외에도 관대하게 잘못을 눈감아주는 비리<sup>31</sup>), 아침꾼, 자기 만족적 인즉 ‘친절함’이 부정적 의미로 전환됨-자세 등 부정적 공시임) 등이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함의 외에도 단어의 의미장(champ sémantique)에 관련된 음양대립이다. 이러한 언어사용은 ‘사유방식에 있어서의 긍정과 부정’의 대립성과 직결된다.

II. 1. 4) 사유방향의 음양 대립성-전과 후에 대한 가치관(내용면에서의) 대립이 문법적 전후(라는 형식)의 뒤바뀜으로도 반영되어 있음

본 장에서는 양 언어의 ‘문장구조의 대칭성’이라는 형식적인 면에서 파생되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가치관의 상반된 방향’의 음양 대립을 보도록 하겠다. 문법이란 형식이 바로 양 문화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사유방식과 세계관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succéder’라는 동사의 사용법을 보면 음의 한국과 양의 프랑스 사이에 시간성을 두고 반대의 방향으로 사유함이 드러난다. “Cette dépression succédant à son état d’excitation était surtout due à sa confrontation à une partie complètement clivée d’elle-même, qu’elle n’avait jusqu’alors jamais pu reconnaître.”<sup>32</sup>)에서 ‘dépression succédant à son état d’excitation’은 ‘흥분 이후에 오는 우울’ 혹은 ‘흥분에 이어 우울이 찾아온다’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불어로는 ‘흥분 이후에 오는 우울의 원인은 분열된 부분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데에 있다’의 문맥으로서 이전에 있었던 ‘흥분’보다는 이후에 온 현재의 ‘우울’이 중심이다. 그것은 문장구조상으로서 이전의 ‘흥분’ 보다는 현재의 ‘우울’이 먼저 배치되고 있다.<sup>33</sup>) ‘succéder à~’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 이후

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Freud, S. (2010). Cinq leçons sur la psychanalyse. Paris: Payot, 181-201}

31) “administration complaisante (행정상의 비리)” : ‘친절한, 호의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라 ‘행정상의 비리’로 얻은 서류를 지칭할 때 쓰인 표현이다. {Freud (2010). 193.}

32) Klein, M.(1968). Envie et gratitude. Paris: Gallimard, 70.

에 오다’로서 이전 것이 먼저 위치한 후 이후의 것이 뒤를 잇는다는 표현방식이다. 거기에는 ‘succéder’ 즉 계승하는 주체 보다는 이전의 것에 더 우위를 두는 사유방식이다. 조상숭배나 선배, 연장자에 대한 우대 등은 단순한 문화 차이라기보다는 이렇듯 언어구조 안에까지 체화된 사유방향으로 보인다. 이전의 존재에 우위를 두는 정신은 곧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방향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표1]의 셋째 란의 ‘전/후, 후퇴/전진’이란 음양의 대립적 성향 그대로이다.

극서지역에서는 예컨대 ‘아버지의 뒤를 잇다’ 마저도 ‘succéder à son père’로 표현함으로써 전치사 à라는, ‘주체가[예컨대 아들이] 타인[예컨대 아버지]을 향해 가히는 행동의 방향’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전의 ‘홍분’이나 ‘아버지’에게 향하는 발화주체의 행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사유방식을 반영한다. 이전보다는 지금의 것이 관건이고 이전의 존재보다는 내가 자리를 차지한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표현방식인 것이다. 즉, 현재로 올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succéder à’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양 언어의 사유방식의 대립성이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은 범주의 단어로 ‘substituer à’가 있다. 한국어로 ‘옛 규칙을 새 규칙으로 바꾸다’를 전하려면 ‘substituer un nouveau règlement à l’ancien’<sup>34)</sup>으로 표현해야 한다. 한국어로는 이전의 ‘옛 규칙’이 현재의 ‘새 규칙’ 앞에 옴에 비하여 불어에서는 완전 반대이다. ‘succéder’와 ‘substituer’에서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가 현재의 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이전의 것보다 문장구

33) “Le tapis faisait environ cinq mètres de longueur sur deux mètres de largeur. (그 카펫은 세로 5미터에 가로 2미터였다)” {Lançon (2018). 34.}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불어에서는 ‘세로’ 다음에 ‘가로’를 말한다. 한국어에서 ‘가로 세로’로 말하는 것과 방향이 반대이다. 같은 사물이 나 현상을 반대 방향으로 읽는다는 것은 사유방식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임을 뜻하기도 한다. 비슷한 예로 한국어에서는 ‘연-월-일’의 순서가 프랑스에서는 ‘일-월-연도’로 바뀐다. 주소 표기방식 또한 한국어에서는 ‘도사-구-동-지번-사람이름’의 순으로, 프랑스에서는 ‘사람이름-번지-길 이름-구-도시’의 순으로 표기된다. 이 모든 예는 음양의 대립된 특성이 비단 언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34) 불한사전 참조, 삼화출판사, 2000.

조 순으로도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서 타인으로 향하는 분출과 발산의 방향<sup>35)</sup>인 전치사 ‘à’로써 이전의 존재나 사물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부차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언어구조가 그렇다고 하여 프랑스 문화 안에 연장자 존중 정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동지역보다는 훨씬 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인류의 문화유산이나 자국의 지나간 역사를 보존하는 성향은 극동지역보다 더 발달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물질(음)과 상반된 정신적 에너지(양)가 발달된 측면이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언어의 단어사용과 문장구조나 순서에서 드러나는 사유방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불어에서 이전의 존재에 대한 예우는 언어구조 이외의 범주로 표현되고 있다.

반면 한국어로는 그렇게 타인에게 가하는 방향성을 함축하는 전치사 ‘à’ 대신에 ‘~의 뒤를’이나 ‘~대신에’라는, 실사(‘뒤’, ‘대신’)가 합성된 표현을 이전의 존재 다음에 붙임으로써 이전의 존재나 규칙 등에 대한 ‘이전의 것을 존중하는 성향’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어떤 것을 자신 안으로 ‘수렴’하는 사유방식도 그 안에 녹아 있다. 그리고 그 때 불어에서 전치사는 이전의 존재 앞에 음에 반하여 그에 대한 등가표현인 한국어의 구문(‘~의 뒤를’이나 ‘~대신에’)은 이전의 존재 다음에 나온다. 이렇게 문법이란 형식적 측면 역시 양(兩) 언어 간의 음양적인 대립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 II. 2. 한국어와 불어의 四象과 이효 과

한국어와 불어 사이의 음양적 대립이란, 한국어는 음적인 성질, 불어는 양적인 성질이 있다는 이원적 구분 하에서의 논의였다. 이제는 음적인 한국어 내에서 음이면서도 안에 양의 특성을 지닌 소음, 음 안에 또다시 음의 특성이 있는 태음의 측면에 해당하는 언어표현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35) 음의 ‘수렴’에 대비된 양의 분출과 발산 - [표1] 참조

하겠다. 마찬가지로 양적인 불어 내에서 양이면서도 안에 음의 특성을 지닌 소양, 양 안에 또다시 양의 특성이 있는 태양의 측면에 해당하는 언어표현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2. 1) 자아 개념의 ‘무화’와 ‘건지’: 한국어의 태음과 불어의 태양-발산과 수렴

“J’avais mis du temps à me débarrasser de mon esprit de sérieux pour l’accepter, et je n’y étais d’ailleurs pas tout à fait parvenu. Je n’avais pas été programmé pour le comprendre, et puis, comme la plupart des journalistes, j’étais un bourgeois.<sup>36)</sup> 그 사실[상징]이나 아유, 풍자 등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프랑스 전통 안에서 세상의 본질<sup>37)</sup>은 낯선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 안의 우직한 정신을 없애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게다가 그걸 완전히 없애지도 못하였다. 나는 그런 것을 이해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기자들처럼 나는 부르주아였다.”

이 부분은 음양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바꾸지 않고 위에서처럼 글자 그대로 직역해도 뜻의 전달에는 별로 무리가 없어 보인다. 심지어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살아남긴 했지만 2015년 1월 급진 이슬람교도 테러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크게 받은) 작가의 진정한 번민, 혼란, 의문, 회의, 미련, 회한 등이 잘 전달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제정신이라면 그러한 처사를 용납했을 것인가’라는 우리말 특유의 표현이 있다. [세상의 그런 본질을] 이해하려면 내 안의 우직한 정신을 없애야 했다’라는 불어 직역 표현 대신 ‘진정한 정신이라면 그런 폭력논리[즉 세상의 본질]를 용납할 수 없기 마련이다.’의 쪽이 한국어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주로 쓰이는 표현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출발어인 불어를 완전히 직역하는 것이 100퍼센트 정확하다든가, 한국어에서 월등히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의역해야 한다든가, 둘

36) Lançon (2018). 51.

37) 여기서 ‘세상의 본질’이란 이슬람 급진 세력의 충기에 의한 살인, 즉 폭력논리를 말한다.

중의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주역의 음양 원리에 따라 음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는 실상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한국어 안에 주된 표현이자 보다 자연스러운 구문이 예컨대<sup>38)</sup> 음의 성질이라면 같은 한국어 안에 그것과 반대되는 특징을 지닌 양적인 표현방식 역시 작은 비율로나마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마찬가지로 ‘진정한 정신에 의해서라면 그런 폭력정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불어로도 가능할 뿐더러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me débarrasser de*”라는, 불어에서 매우 전형적인 표현이 더욱 더 자연스럽고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그것이 프랑스인이라는 양인에게 있어 지배적인 사유방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양 안에 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분석에서는 반드시 음의 세계에서는 음적인 것만, 양의 세계에서는 양적인 사고방향만 100퍼센트 존재한다는 (실상과는 맞지 않는) 부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자세는 “음과 양의 법칙에 100% 음과 100% 양을 가진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음과 양의 편차가 있을 뿐, 어느 물질이든 음과 양을 함께 지니고 있다. 아주 극소량이라도 음과 양이 구비되어 있으면 의식이 있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석을 아무리 잘게 잘라도 N극과 S극이 존재하고, 소립자를 아무리 잘라도 파동성과 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순음, 순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sup>39)</sup>는 역경의 내용과 통한다. 단, 64괘 중 순음괘인 곤(坤)과 순양괘인 건(乾)은 존재하나 그 건과 곤은 역(易)의 문(門)이 되며 만물을 낳는 부모로서 모든 괘의 바탕이 된다.<sup>40)</sup>

38) 이후에 논의될 [표 3]의 첫 행에 대한 논지에서 보듯, 우리는 “‘나’란 과연 존재하는 실체인가?”란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음이고 ‘그렇다’라고 보는 서양의 입장이 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긍정과 부정 중 어느 쪽이 양이나 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쪽에서는 긍정하는 것을 다른 편에서는 부정하고 한 쪽에서 부정하는 것을 다른 편에서는 긍정한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긍정과 부정의 음양원리에 대한 이후의 장 참조).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음양사상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본문에 “예컨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39) 이성환, 김기현 (2006). 246.

40) 김석진 (1999). 153. “건은 시작을 주재하고 곤은 그것을 받아들여 만물을 완성한다. (乾知大始, 坤作成物, 계사전)”

이러한 우리의 자세는 “~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라면서 단순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배제하지 않는 근사치적 표현보다 훨씬 더 음양의 원리라는 진리에 기반을 둔 논법이다. 또한 ‘주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음인지 양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자세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음양이란 항상 변화하는 것이기에 음양이 공존한다 해도 그 비율 역시 항상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양이 물러날 때 음은 커지고 음이 후퇴할 때 양은 전진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sup>41)</sup> 그러한 ‘움직임’을 간과하는 한 어떤 ‘주류’를 고정적인 것으로 보고 지정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집단적인 강요의 현상을 낳을 위험도 있다. 즉, 우리는 주된 표현 양식 안에 그렇지 않은 음양 상 반대의 표현방식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표 3]

한국어 (음)	불어 (양)
‘진정한 정신이라면 그런 폭력은[즉 세상의 본질을 용납할 수 없기 마련이다:라는 등가 번역문에는 어떤 정신이 주체적으로 나의 의지나 행동을 결정한다는 사유패턴이 잠재되어 있다. 그것은 어떤 의지의 주체로서의 ‘나’란 과연 실지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통찰의 결과로서, 그렇게 존재근거가 희박한 ‘나’란 형이상학적 상정보다는 ‘나’라는 것이 결국은 너와 육체 안에서 작동하는 어떤 정신일 뿐임을 파악한 후에 나온 직관이다.	‘내 안의 움직인 정신을 [내가 없앤다(me débarrasser de)]’라는 원문에서의 단어와 표현양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입장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때는 어떤 정신(여기서는 ‘움직인 정신’)을 나의 의지에 종속되고 나의 행동에 의하여 처리되는 객관적 대상으로 보는 사유패턴이다. (그러나 그러한 ‘나’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시간이 걸렸다’라는 등가 번역문: (주체가 아닌) 외부 대상을 위주로 표현함	‘j’avais mis du temps’이라는 원문: “내가 시간을 놓다”라는 직역에서 드러나는 바, (외부대상이 아닌) 주체를 위주로 표현함
밖의 것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수렴의 특성: 원문에서의 단어인 “se débarrasser de”와 “bourgeois”를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표현했을 때 드러나는 성질	안의 것을 밖으로 향하게 하는 발산의 특성: 원문에서의 단어인 “se débarrasser de”와 “bourgeois”라는 불어의 표현

41) “음은 양을 밀쳐내고 양은 음을 밀어내며, 양이 오면 음이 물러가고 음이 오면 양이 물러가는 상승작용을 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석진 (1999). 68.} 라는 음양의 상호작용의 특성은 음양을 나타낸 태극 그림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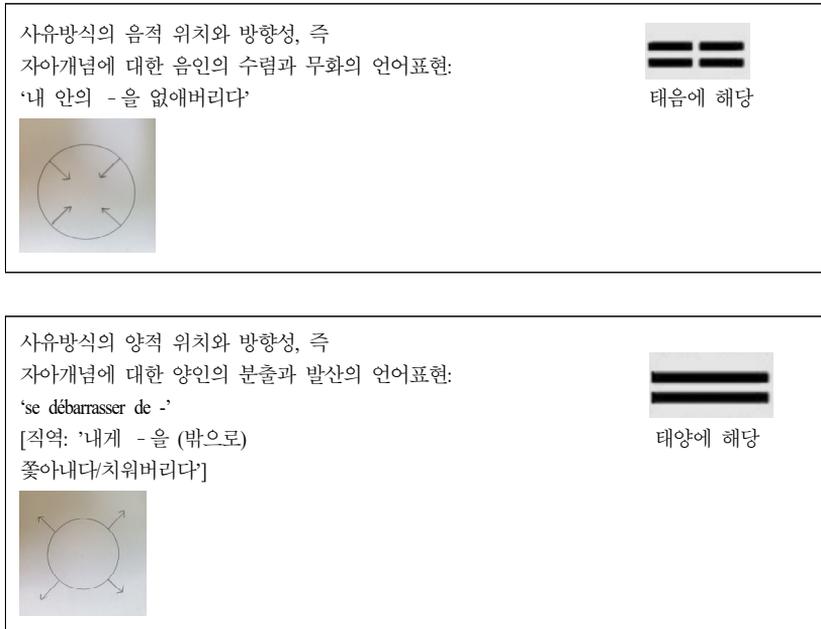
위의 표에서 첫째 란과 둘째 란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이라는 극동지역과 프랑스라는 극서지역의 서로 반대되는 특성에 일정한 성향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란을 보자면 한국어에서 어떤 정신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불어에서는 행위의 주체인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여 그 정신이 객관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둘째 란에서도 한국어에서는 실질인 외부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불어에서는 주체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즉 음인 극동 지역에서는 자아개념을 자꾸 무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양인 극서 지역에서는 자아개념을 극구 잡으려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듯 음과 양이 서로 방향이 반대되는 것은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반대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전진으로 보이는 것이 반대쪽에서는 후퇴로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se débarrasser de(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제거해준다, 해방시키다)”의 표현이 한국어로는 매우 생소한 표현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불어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광범위하게 쓰이는 표현에 속한다는 사실만 보아도 양의 언어인 불어와 음의 언어인 한국어에 서로 반대되는 음양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역력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양인은 발산과 분출의 성향이기에 그런 ‘해방시키다’의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음인은 안으로의 수렴의 성향이기에 밖에서부터 안으로 내 안의 무엇을 없앤다는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다. 그래서 [그림1]에서 보듯, 불어에서는 내게 있는 무엇을 밖으로 치워버린다는, 안에서 밖으로 발산하는 방향이고 한국어에서는 내 안의 무엇을 내가 내 안의 방향으로 작용시켜 없앤다는 수렴의 의미가 강하다. 발산과 수렴이라는 양과 음의 특성은 이성환, 김기현이 지적하는 양인과 음인의 성향과 꼭 같다. “서양 사람들은 톱질을 할 때 미는 힘을 더 쓴다. 톱 자체가 밀 때 나무가 잘리도록 되어 있다. 동양 사람들은 톱질을 할 때 잡아당기는 힘을 더 쓴다. 톱 자체가 잡아당길 때 나무가 잘라지도록 되어 있다. 서양 사람들은 비질을 할 때도 몸 밖으로 쓸어낸다. 동양 사람들은 비질을 할 때도 몸 쪽을 향해서 쓴다. 서양사람들은 양인이라 추력(推力-미는 힘)이 발달되어 있고 동양사람들은 음인이라 인력

(引力~끄는 힘)이 발달되어 있다.<sup>42)</sup>

이렇듯 사유방향의 대립성은 언어행위 이외의 현상에도 꼭 같은 법칙으로 작용하는 우주적 법칙이다.<sup>43)</sup> 즉, 양인인 프랑스인들이 사용하는 붙어는 미는 힘인 추력과 같이 밖으로의 발산의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고 음인인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끄는 힘인 인력과 같이 안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언어분석에서 드러나는 발산과 수렴, 방향의 반대뿐만 아니라 [그림 1]과 [그림 3]에서의 화살표의 방향과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언어표현에 자리한 음양의 특성이다.



[그림 1]

42) 이성환, 김기현 (2006). 135.

43) 그 외에도 “se débarrasser de”라는 단어가 음의 세계인 한국어로는 “내 안의 무엇을 없앤다”는 전자의 “~에게 ~을 해준다” 식으로 대상을 객관화하는 자세와 ~을 없애주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없애는’ 표현방식도 대립된다.

[그림 1]에서 중요한 사항은 ‘se débarrasser de~ 내게 -을 (밖으로)치워버리다/해방시키다’를 한국어로는 ‘내 안의 -를 없애다’라는 내용으로밖에 번역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내게 -을 (밖으로)치워버리다/해방시키다’라는 직역에 충실한 사전적 의미를 적어도 그렇게 번역해야 출발어에 대한 등가의 외시적 의미가 더욱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불어 안에 체화되어 있는 ‘발산’의 표현방식이 한국어에는 없거나 혹은 어색하거나 적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불어의 태양적 성질이 한국어 안에 체화되어 있는 태음적 사유방식과 단순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지금 ‘se débarrasser de’란 표현을 예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실지 불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옮길 때 곤혹스런 이유 중에 이러한 사유방식의 방향성의 차이가 근원일 때가 많다.

## II. 2. 2) 불어의 소양과 한국어의 소음- 불어와 한국어의 특질

四象 중 소양의 궤에 대하여 이성환, 김기현은 “이 궤는 바깥궤의 윗부분이나 상부는 양작용(에너지 소모)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하부궤의 밑부분이나 곳은 비어있고 음작용(물질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 여름은 에너지가 극에 달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 여름에 해당하는 소양의 궤상이 위에는 양이 배치되나 아래는 음이 있다. 여름의 끝에 가을이 오듯 더위가 극에 달하면 비가 오고[...]”<sup>44)</sup>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에 [표 3]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는 행위의 주체인 ‘내’가 중심인 불어의 표현방식이 바로 소양의 궤에 들어맞음을 볼 수 있다. 실체를 찾을 수 없는 ‘나’란 개념을 겉으로 강하게 내세우는 양적 불어의 특성은 겉껍질이 단단한 양인의 특성, 뼈가 밖에 있고 안은 부드러운 가슴이나 뇌의 양적인 특질<sup>45)</sup>과 같은 성향이다. 소양인의 성격은 겉으로는 딱딱하나 속은 부드럽거나 허한 것이다. 반면 겉껍질에 불과한 ‘자아개념’을 무화시키고 내적 정신에 주로 활동을 집

44) 이성환, 김기현 (2006). 219.

45) 위의 책, 250.

중시키는 ‘자기무화’의 한국어 표현방식의 특성은 겉에는 부드럽고 속은 딱딱한 뼈가 들어있는 태음, 소음<sup>46)</sup>과 같은 성향이다. 그것은 상부(겉)은 음이고 하부(속)은 양인 소음의 궤에서처럼 ‘자아개념’이 무화되고(궤의 상부가 음) ‘어떤 정신이 주체적으로 나의 의지나 행동을 결정한다’(궤의 하부가 양)는 소음의 사유패턴<sup>47)</sup>([표4]의 첫 행)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상의 이효 궤, 특히 소양 궤와 소음 궤([그림 2] 참조)에서 상부의 효 자리는 언어학적으로 보면 ‘자아개념’의 자리라고 볼 수 있다. 그 자리가 양이면 소양이나 태양으로서 프랑수아적 언어표현인 것이고 음이면 소음이나 태음으로서 한국어적 언어표현이 되는 것이다.

음적인 사유방식이 지배적인 언어인 한국어에서 주어(主)를 자주 생략할 수 있는 문법체계 역시 ‘자아 무화’의 소음의 궤상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반면, 매우 흔히 쓰이고 불어에서 매우 전형적인 표현 중의 하나인 “se débarrasser de”에서 극명히 드러나는 ‘자아 개념의 공고화’는 불어에서 주어(主)를 생략하고는 문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확연히 밝혀진다. 사상의 이효에서 ‘자아개념’의 자리인 상부(바깥)궤가 양이면 자아개념이 공고화되는 쪽으로 발달된 언어이고 상부궤가 음이면 자아개념은 무화되고 인간 내부의 정신현상이 부각된 언어이다.



[그림 2]

양극생음(陽極生陰)의 시기에 해당하는 소양의 궤<sup>47)</sup>에서는 바깥인 상부는 양, 속인 하부는 음으로 되어 있어 양의 에너지가 극에 달하는 여름의 시기에 음의 물질화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음극생양(陰極

46) 위의 책, 250-262.

47) 이성환, 김기현 (2006). 219.

生陽)의 시기에 해당하는 소음의 궤는 겨울엔 겉으로는 음이 성한 것처럼 보여도 하부에서부터는 양의 기운이 태동하고 있는 궤상이다. 그래서 상부는 음, 하부는 양의 궤로 되어있다. 바로 전 장에서 분석된 태양과 태음의 경우 외에도 여름에 해당하는 소양의 궤가 양의 사유방식인 불어의 구사방식에 해당함 혹은 겨울에 해당하는 소음의 궤가 음의 사유방식인 한국어의 구사방식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소양의 궤에 해당하는 불어에서는 예컨대 인칭대명사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어 ‘자아개념’의 자리인 상부궤가 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주어가 je, tu, il, elle, nous, vous, ils, elles 중 어느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변하는 동사변화(conjugaison)의 현상 역시 소양의 궤가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것은 대화상대(interlocuteur)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주어로 대변되는 ‘주체’ 즉 ‘자아개념’을 견고하게 지키는 소양의 궤인 것이다. 이때 발화자(sujet parlant)가 대화상대와 맺는 관계는 언어행위에서 극히 미약한 요소로 작용한다. 청자가 누구인지 거의 상관 없이 ‘나’ 즉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동사변화를 하는 것이다. 나이 어린 청자에게 ‘tutoiement’을 하기는 하지만 그 때에도 그것은 상대인 ‘tu’에 따른 동사변화이지, 발화주체를 나타내는 주어와 관련된 동사가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발화자가 외부세계와 맺는 관계를 나타내는 하부 효가 소양의 궤에서는 음이다.

이 점은 청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존대말과 반말로 어미변화를 하는 한국어와 대조적이다.(그렇기에 소음의 궤에서 하부 효는 양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효에서 하부 궤가 바로 ‘발화자가 외부대상과 맺는 관계’의 자리라고 본다. 과연 소양에 해당하는 불어<sup>48)</sup>의 궤에서 하부 궤는 음으로 되어 있다. 반면 발화자가 외부의 대화상대와 맺는 관계가 극히 중요하기에 곧바로 동사어미

48) 이성환, 김기현의 역경 해설을 통하여 불어가 일단은 양인(陽人)의 성질을 가졌다든 확인에서 출발한 후 우리는 보다 세분화하여 불어 안에서 어떤 표현이 태양의 성질이거나 소양의 성질을 띠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음의 언어인 한국어 안에서 어떤 표현이 소음의 성질 혹은 태음의 성질을 띠는지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하여 정리되고 있다.

변화나 존댓말, 반말의 어미변화로 긴밀히 이어지는 한국어에 해당하는 소음 궤에서는 하부궤가 양인 것이다. 대신 ‘자아 무화’의 언어인 한국어의 궤상(卦象)답게 소음의 상부궤는 음으로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四象의 二 爻 卦象에서 상부궤는 ‘자아개념’의 성질을 나타내는 자리이며, 하부궤는 ‘발화자가 외부대상과 맺는 관계’의 성질을 나타내는 자리라고 본다. 이러한 궤상 해석은 필자의 주관이나 통찰에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64효 중괘를 읽을 때의 해석방법에 영감을 받은 것이다.<sup>49)</sup>

전 장의 [그림 1]을 보자. 한국어의 태음의 표현에서는 하부 효가 음으로 되어 있다. 발화자가 외부세계와 맺는 관계는 과연 그리 강조되지 않은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내 안의 ~을 없앤다, 무화시킨다’는 언어표현방식은 사회적 관계보다는 모든 인연을 끊고 수행에 정진하는 자세와 관련이 깊다. 상대와의 관계가 거의 없는 극단적 소승불교의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긍정하는 대승불교의 맥락에서 보더라도 밖의 환경보다는 (외부세계를 탓하지 않고) 내 안의 마음자세를 일단 고치는 수행전통의 영향이 큰 표현이다.

그리고 역시 (또는 음양 법칙 상 정반대로) [그림1]에서, 불어의 태양의 표현에서는 하부 효가 양으로 되어 있다. 과연 ‘se débarrasser de’라는 언어표현에서 ‘발화자가 외부세계와 맺는 관계’는 매우 본질적이지 필수적인 조건이다. 왜냐면 주체가 무엇을 밖으로 치워버리는 행위는 외부 대상이나 세계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성립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외부세계에 대한, 외부세계를 향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양의 언어인 불어에서는 발화자와 외부세계의 필수적 관계에서마저도 상대와의 돈독한 관계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위한 조건을 위한 상징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림3]에서 보는 한국어의 소음적 특질에서 하부 효가 양으로서 발화자와 대화상대의 관계가 매우 돈독한 것과 대조된다.

사상의 2효에서 상부의 효가 ‘자아개념’의 음양 여부의 자리에 해당하고

49) 궤를 읽는 방법에 관해서는 본지의 제한된 지면상 그 방대한 내용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한 ‘김석진 (1999)’ 특히 150쪽, 155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하부의 효가 ‘발화자가 외부대상과 맺는 관계’의 음양 여부의 자리에 해당한다는 우리의 논지는 상부 효가 바깥(즉 陽)에 해당하고 하부 효가 속(즉 陰)에 해당한다는 이성환, 김기현의 역경 해설과도 딱 들어맞는다. 대화행위에서 ‘자아개념’이란, 일단 주어의 위치에서도 그렇고 겉으로 우선적으로<sup>50)</sup> 드러나는 요소로서 양의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양의 자리에 양이 위치<sup>51)</sup>한 소양과는 자아나 주어개념을 견고화하는 서양인의 사유방식과 서양언어<sup>52)</sup>의 문법체계를 잘 보여주는 패이다. 그리고 ‘발화자가 외부대상과 맺는 관계’는 문장에서 외면적으로 항상 드러나지 않는, 부차적이고 비교적 가려져 있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음의 자리에 양이 위치한 소음과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인의 사유방식과 동양언어<sup>53)</sup>의 문법체계를 잘 보여주는 패이다.

그리고 음의 자리(하부 패)에 음이 위치한 소양과는 인간 사이의 관계는 고려 안한 채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주체만을 중심으로 동사변화하는 서양인의 사유패턴과 서양언어의 문법체계<sup>54)</sup>를 잘 보여주는 패이다.

소음패에서 상부 효인 ‘자아개념’이 음인 것은 위에서 이미 다룬, ‘나를 무화시키고 내 안의 정신 안으로 수렴하는 자세’로 나타난다. 보다 일반적 현상을 보자면 한국어에서는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를 자주 생략하고 그리 내세우지 않는다. 이러한 일반적 문법현상만을 보아도 이회패에서 상부효가 음인

50) 태극에서 만물이 생성될 때 일단 양에서 비롯하거나 시작하여 음으로 향한다. “음양의 순서로는 먼저 양이 동(動)하여 나오고 그 다음에 음이 정(靜)하여 나옵니다.” (위의 책, 67.)

51) 64효에서도 양의 자리에 양효가 위치한 패와 음의 자리에 음효가 위치한 패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상의 패는 밑에서부터 위로 일어나간다. (위의 책, 276 ~ 288쪽 참조) 또한 四象의 二爻에서 상부는 양의 자리이자 ‘바깥’이고 하부는 음의 자리이자 ‘속’에 해당한다. {이성환, 김기현. (2006). 219.}

52) 예컨대 주어를 생략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문장구조는 불어뿐만 아니라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 등 서양어의 전반적인 특성이다.

53) 이러한 특징을 지닌 동양 언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한국어 외의 다른 동양어까지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그러므로 다른 지면을 빌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54) 동사변화는 불어뿐만 아니라 독어 등도 마찬가지이다. 영어에서 3인칭 다수일 때만 동사 말미에 ‘s’를 붙이는 것은 이전의 발달되었던 동사변화가 단순화된 결과라는 설이 있기는 하다. 이 역시 다른 지면을 빌어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소음패가 주어생략이 잦은 한국어의 일반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과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의 효로 나타나는 음양 뿐만 아니라 이효로 표현되는 사상의 과에서도 이렇듯 음양대립의 특성은 지속되고 있다. 즉 동양어에서 발달된 부분은 서양어에서는 미약하고, 서양어에서 발달한 부분은 동양어에서 매우 축소되어 있음이 사상의 이회괘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음양과 사상의 여러 특징들이 한 문장의 전반부(“J’avais mis du temps à me débarrasser de mon esprit de sérieux pour l’accepter”) 안에 동시에 녹아있고 그것은 디지털 부호인 사상의 과상에서 얼마든지 짚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II. 2. 3) 존재 안에서의 성찰과 존재 밖에 머무는 아유: 한국어의 소음과 불어의 소양

“J’avais mis du temps à me débarrasser de mon esprit de sérieux pour l’accepter, et je n’y étais d’ailleurs pas tout à fait parvenu. Je n’avais pas été programmé pour le comprendre, et puis, comme la plupart des journalistes, j’étais un bourgeois.<sup>55)</sup> 그 사실[상징]이나 아유, 풍자 등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프랑스 전통 안에서 세상의 본질은 낯선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 안의 우직한 정신을 없애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게다가 그걸 완전히 없애지도 못하였다. 나는 그런 것을 이해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기자들처럼 나는 부르주아였다.”라는 문장 중 이전 장에서는 전반부를 분석해 본 것이었는데 이 장에서는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j’étais un bourgeois.”이다. 작품의 다른 단락에서 작가는 자신이 흑인이나 아랍인이라고는 멀리서 보는 것 말고는 도무지 접촉할 일이 없는 백인 중산층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말하며 자신은 정치성향이 별로 없지만 신경 쓰지도 않은 사이 어느새 좌파정도가 되어있었다고 적고 있다.<sup>56)</sup>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 필립 랑송은 백인 중산층

55) Lançon, P. (2018). *Le lambeau*. Paris: Gallimard, 51.

56) “On disait qu’ils avaient des couteaux, on évitait de descendre au garage aux heures creuses.

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차원에서는 프랑스 전통 정치성향인 좌파였기에 오토바이가 털릴 때마다 은근히 특권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뽐뿌 부르주아 근성이라고 자조(自嘲)하고 있다. 타인이나 정치세태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까지도 비웃는 일은 비단 『샤를리』라는 풍자 신문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개인 사이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현상이다. “나는 그런 것을 이해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기자들처럼 나는 부르주아였다.”의 부분을 읽을 때 프랑스의 문화적 맥락에서 그것이 유머러스한 이유는 바로 이런 자조의 톤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부르주아였다.’라고 한국어로 옮겨지는 즉시 그런 유머는 자취를 감추고 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에서는 남이나 나를 놀리고 야유하는 성향이 그리 크게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부르주아였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함축하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인과 사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야유와 조롱은 그것이 특히 자조일 때, 외부 사회의 맥락을 자신에게 가하는 화살이다. 자신마저도 마치 객관적 대상인 것처럼 말이다. 그것은 밖에서부터 출발한 ‘부르주아’라는 외부의 정의를 야유조로 자신에게 향하는 것으로서 자신 안으로까지의 성찰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화살은 존재 밖에만 머물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한 정신현상을 그림으로 도식화해보면 [그림3]과 같다. 화살표의 위치는 [그림1]에서와 같이 양적인 사유방식(태양과 소양)일 때에는 주체의 존재범위를 상징하는 원 밖에 항상 위치하며 음적인 사유패턴(태음과 소

---

C'était un fantôme. je ne suis pas allé vérifier. Ma 《mob》 une 104 Peugeot, a été plusieurs fois dépouillée. J'étais attristé mais je n'étais pas vraiment surpris, car être dépouillé me semblait faire partie de ma condition de petit-bourgeois. Je n'étais de rien, mais j'étais de gauche, j'imagine, sans le savoir et sans m'en soucier. 아랍인들은 칼을 지니고 다니니까 한 적한 시간에는 주차장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머릿속의 환상인 그런 말을 확인하러 내려간 적은 없었다. 프조 104인 내 오토바이는 몇 번이고 부속품들이 털렸다. 나는 슬펐지만 속으로는 그리 놀라지 않았다. 털리는 일을 당하는 것은 뽐뿌 부르주아라는 내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무 쪽도 아니었지만 좌파이었던 것 같다. 나도 모르는 새에 또 신경 쓰지도 않았던 사이에.” {Lançon (2018). 57.}

음일 때에는 주체의 존재 범위를 상징하는 원 안에 항상 위치한다. 화살표의 방향이 원의 바깥 쪽으로 향하면 그것은 양의 성격을 나타낸다. 예컨대 소음의 경우 음 중에서도 그 음 안(하부 괘)에 양의 성격이 있음을 뜻한다. 화살표의 방향이 원의 안쪽으로 향하면 그것은 음의 성격을 가리킨다. 예컨대 소양의 경우 양 중에서도 그 양 안(하부 괘)에 음의 성격이 있음을 뜻한다.

중요한 점은, 상부 효의 음양 여부는 화살표의 위치로 표시되고 하부 효의 음양 여부는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시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사상의 이회괘를 읽는 방식 상 상부 효와 하부 효를 각각 읽는 방법을 언어학적으로 표시해 본 것이다.

이렇게 이회괘를 읽는 방법은 상부 효를 바깥으로 보고 하부 효를 안으로 보는 주역의 독법에서 우리의 언어학적으로는 겉의 상부 효가 자아개념의 자리이고 속의 하부 효가 발화자가 외부대상과 맺는 관계의 자리인 것과 구분되는 독법이다. 그것은 이회 괘를 읽는 방식이 두 가지인 것과 같은 방향이다.



[그림 3]

마찬가지로, 한국어 표현으로 ‘나는 부르주아였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롱보다는 자신의 실지 존재의 모습이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에 이러한 정신현상을 도식화해보면 [그림 3]에서처럼 화살표는 주체의 존재 안에 머물러 있는 음의 언어이지만 그 안에 양의 성격이 있기에 화살표의 방향이 외부로 향해 있다. 내가 부르주아라는 자각은 부르주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정치적 정의와 맞닿아 있는 것이기에 화살표의 방향은 외부로 향해 있는 것이다.

이 때 자아개념에 해당하는 상부 패가 음인 만큼, 내 정체성에 대한 고민 입에도 불구하고 나를 밖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즉 자아개념이 무화됨을 나타내는 음인 것이다. 반면 ‘부르조아’라는 단어의 사회적 의미나 정의(définition)에 대한 성찰이기에 화살표는 밖으로 향해있고 그만큼 하부 패는 양인 것이다. 즉 자신 안에서의 성찰이지만(음의 상부 패) 사회적 맥락과 관계된 어떤 개념(부르조아라는 정체성)과 나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하부 패는 양인 소음의 패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불어로 ‘j’étais un bourgeois.’의 언어표현에서는 외부세계(사회난타인)의 시각을 자신에게 가하는 조롱(auto-dérision)인 만큼 그런 자조의 대상인 ‘나’가 분명히 있다.(굳건한 자아 개념이 필수임) 그러므로 자아개념을 나타내는 상부 패가 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자신이 자신에게 가하는, 거의 독백에 가까운 이 표현에서는 외부세계나 대화상대와의 관계가 별로 없다. 그렇기에 이 소양의 패에서 하부 패는 음으로 되어 있다. 부르조아라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개념은 그것이 외부에서 왔으므로 화살표의 방향은 안으로 향하고 있다.

[그림 1]과 [그림3]에서, 화살표의 위치가 바로 해당 사유방식이 일단 전체적으로 음인지 양인지를 결정해주는 요소인데 [그림 3]을 보면 그 원칙은 같되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이다. 이것은 양적인 성향과 음적인 성향이 그 방향을 달리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성질에 따른 경향, 기질’을 의미하는 性向이란 단어마저도 ‘향할 向’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렇듯 단어의 구성 자

체에도 음양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전까지의 논의에서는 불어와 한국어가 서로 번역될 때 번역 표현 자체가 달라지는 데서 오는 음양, 사상의 특성을 보았는데 지금의 논의는 같은 표현이 사회, 정치, 문화적 특성과 긴밀히 맞물린 사고방식의 대립성에서 오는 四象의 특성에 해당한다.

[표 4]

한국어 (음)	불어 (양)
(존재) 안에 머물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존재)밖에 머물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의는 밖으로 향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림 3]의 화살표는 밖을 향해 있다. 그것은 ‘걸’(즉 상부 궤)은 음이되 부수적인 ‘속’(즉 하부 궤)의 방향은 발산(양)의 성질인 소음궤에 해당한다.	사회 문화적으로 남을 야유하는 성향을 자신에게도 스스로 가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출발한 화살이 자신의 존재에게로 와 닿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3]의 양적 사유 방식에서 화살표는 안을 향해 있다. 그것은 양의 성격이 갖어드는 소양의 성향에 속한다. <sup>57)</sup>
그것은 [그림 1]의 태음 궤에서처럼, (존재) 안에 머물되 화살표의 방향마저도 안쪽으로 향한 것과 대비된다. 어떤 정신을 무화시키는 성찰은 자신 안으로의 깊은 수렴, 즉 겨울과 같은 움직임이다.(작용적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 그러나 형체적 관점에서 태음은 가을이다 <sup>58)</sup> ) 즉 같은 음적인 사유방식(상부 궤 즉 걸은 음이라도 화살표 방향(우리의 고안에서 하부 궤로 표현됨)으로 또다시 음양이 나뉘고 있다.	그것은 [그림 1]에서처럼, (존재) 밖에 머물되 화살표의 방향마저도 바깥쪽으로 향한 것과 대비된다. (자신으로부터 어떤 것을 치워버리는, 밖을 향한 행동) 즉, 같은 양적인 사유방식이라도 방향이 반대이다. 이러한 현상은 양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발하는 태양의 성향에 속한다.

#### II.2.4) 궤 안에 담긴 언어분석 내용

[표 1], [표 2], [표 3], [표 4]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 1]과 [그림 3]의 궤상을 언어학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불어가 양의 언어이고 한국어가 음의 언어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양의(兩義)에서 출발한 후, 불어의 ‘se débarrasser de’와 그에 해당하는 한국어 번역에서 비롯

57) 이 소양적 표현을 볼 때 우리는 ‘겸손’과는 거리가 먼 프랑스(양인)의 세계에 전형적인 [그림 1]의 태양적 언어표현방식에 비하면 비교적 겸손한 자세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태양에 비하면 소양에서 양의 기운이 사그러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58) 형체나 작용이냐의 체용(體用)에 관해서는 ‘이성환, 김기현 (2006). 512.’을 참조하기 바란다.

된 두 언어체계의 제반 현상과 특징은 각각 태양, 태음이고([그림 1]) ‘j’étais bourgeois’와 그에 해당하는 한국어 번역에서 비롯된 두 언어체계의 제반 현상과 특징은 각각 소양, 소음이었다([그림 3]).

[그림 1]과 [그림 3]에서 화살표의 위치가 원(‘나’, 즉 발화주체의 존재를 도식으로 표시한 것) 안에 위치하면 그것은 일단 음의 언어(내 안으로의 수렴) 입을 드러내고 원 밖에 위치하면 그것은 일단 양의 언어(내 밖으로의 발산, 분출) 입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음양의 성격은 이효 괘 중 상부 괘로써 표시된다. 이러한 우리의 고안은 상부 괘가 모두 양인 괘는 태양, 소양인데 그것은 불어가 양의 언어라는 사실과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이효 괘에서 상부 괘가 모두 음인 괘는 태음, 소음인데 그것은 한국어가 음의 언어라는 사실과 일치한다. 이렇듯 화살표의 위치가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 일단 언어 자체의 음양이 결정된다. 이후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은 우리의 고안에서 이효 괘의 하부 괘에 해당한다. 즉, 화살표가 구심적이면 음, 원심적이면 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림1]의 첫째 상자에서 원의 안(상부 괘 음)에 위치한 화살표의 방향이 구심적이므로 하부 괘 역시 음이 되어 전체적으로는 태음의 괘를 이룬다. [그림1]의 둘째 상자에서는 원의 밖(상부 괘 양)에 위치한 화살표의 방향이 원심적이므로 하부 괘 역시 양이 되어 전체적으로는 태양의 괘를 이룬다. [그림3]도 마찬가지로, 첫째 상자에서 원의 안(상부 괘 음)에 위치한 화살표의 방향이 원심적이므로 하부 괘는 양이 되어 전체적으로는 소음의 괘를 이룬다. [그림3]의 둘째 상자에서는 원의 밖(상부 괘 양)에 위치한 화살표의 방향이 구심적이므로 하부 괘는 음이 되어 전체적으로는 소양의 괘를 이룬다.

## 結論

이상 한쪽 언어표현에 대하여 등가의 외시(dénotation)적 의미를 갖는 다른 쪽의 언어표현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불어와 한국어의 음양적 대립

과 사상적 특질을 역경의 패상에서 발견해 내었다. 이러한 우리의 연구는 사유패턴이라는 내용과 문법적 측면이라는 형식의 양면에서 모두 음양적 대립 내지는 더욱 세분화된 사상(四象)의 특질이 발현되어 있음을 밝히는 작업이다.

[주역의 패를]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이름붙일 수도 있고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여 이름을 다시 붙일 수도 있다. 주역을 패상 위주로 연구해 보면 자기의 전공분야에 맞추어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 일단 대충 해석해 놓으면 주역의 패들이 많은 새로운 힌트를 준다. 앞으로 전공분야에 따라 물리 주역, 화학 주역, 의학 주역, 컴퓨터 주역 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sup>59)</sup>

위의 인용문에서도 내포되듯 우주의 만물 안에 작용하고 있는 음양의 원리<sup>60)</sup>가 불어와 한국어라는 지구상의 상이한 두 언어의 상호 표현방식의 대립성에도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혀낸 우리의 연구를 시초로, 향후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거듭될수록 더욱 방대한 언어자료도 함께 축적됨에 따라 진정한 ‘비교언어 주역’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즉 전과 후, 과거와 현재, 수렴과 발산, 자아개념의 무화와 견지, 주체의 안과 밖이라는 음양의 형이상학이 어떻게 불어와 한국어에 고유한 표현방식으로 물질화되어있는지를 보인 본 연구는 주역 자체의 본질인 심물일원(心物一元)과 형상형하(刑上刑下) 일체를 지향한 탐구이기도 하다.

참고로, 본론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바지만 본문에서 예로 든 불어 표현 인용은 어느 작품이나 작가 특유의 표현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에서가 아니다. 그것은 불어에 전형적인 표현의 구체적 예를 객관적 자료를 밝혀가면서 들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업은 일정 작

59) 이상환, 김기현 (2006). 453.

60) 음양과 사상 등이 자연과학과 일상의 여러 분야에 적용된 예는 이상환, 김기현의 저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품을 정하여 그것이 어떻게 (적절히) 번역되었는지의 여부를 천착하는 선행 연구<sup>61)</sup>와는 주제나 출발점이 매우 다른 연구임을 밝힌다.

**【주제어】** 음양, 사상(四象), 사유방식, 불어, 한국어, 자아개념

---

61) 참고문헌 참조

[참고문헌]

- 고광단 (2001). 한국소설의 불어번역에 나타난 문제점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를 중심으로-. 프랑스학 연구, 20(0), 37-57.
- 고희민 (1978). 대역철학론(大易哲學論). 정병석(鄭炳碩) 옮김 (1996). 주역철학의 이해. 서울: 문예 출판사.
- (大山) 김석진 (1999). 대산 주역강의 上經. 서울: 한길사.
- 박용익 (2016). 의사소통 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인문과학, 107, 5-32.
- 이성환, 김기현 (2006). 주역의 과학과 도. 서울: 정신세계사.
- 임병학 (2018). 『東醫壽世保元』에서 氣와 사상인의 마음작용 고찰. 인문과학, 112, 181-205.
- 황의필 (2019). 역(周)의 64괘 상징과 분석심리학의 무의식에 드러나는 예술. 인문과학, 117, 7-50.
- Freud, S. (2010). Cinq leçons sur la psychanalyse. Paris: Payot.
- Klein, M.(1968). Envie et gratitude. Paris: Gallimard.
- Lançon, P. (2018). Le lambeau. Paris: Gallimard.
- Le clézio, J.M. (1980). Désert. Paris: Gallimard.
- <https://www.franceculture.fr/emissions/la-grande-table-idees/qui-sassemble-se-ressemble>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불어와 한국어의 표현양상의 차이를 陰陽과 四象으로 풀어낸 성찰로서, 주역의 음양론을 언어현상에 적용시킨 새로운 학문 분야 즉 비교언어학 주역의 시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문의 1장에서는 먼저 양 언어의 음양적 특색을 검토한다. 그리하여 문장구조 순서가 두 언어에서 서로 정반대라는 사실은 앞과 뒤의 음양적 대립이 지구상의 다양한 언어현상으로 각각 발현된 것으로 본다. 정(靜)과 동(動)의 음양대립은 태극이라는 같은 내용을 표현할 때 다른 단어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발현된다. 그 외에도 한 쪽 언어가 다른 쪽 언어에 해당하는 등가 번역 표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의의 부정과 긍정이 대립적으로 쓰이고 있음 역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과 후에 대한 가치관의 음양적 대립이 문법적 전후의 뒤바뀔으로도 반영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후 2장에서는 사상적 특질 분석으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자아개념’을 무화시키고 내적 정신에 주로 활동을 집중시키는 ‘자기무화’의 한국어 표현방식의 특성은 사상의 궤에서 소음의 궤에 해당함을 밝혔다. 반면 실체를 찾을 수 없는 ‘나’란 개념을 겉으로 강하게 내세우는 불어의 양(陽)적 사유방식은 소양의 궤상에 해당함을 밝혔다. 아울러 상부의 효 자리는 음양의 언어학으로 ‘자아개념’의 자리이며 하부의 효 자리는 ‘발화자가 대화 상대와 맺는 관계’의 자리임도 정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문과 단어에 따라 불어에서의 태양, 소양적인 표현, 한국어에서의 소음, 태음적인 표현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 예를 통하여 짚어내었다. 그리하여 양국의 언어에서 보이는 사유방식의 특성을 역경의 궤상 특히 사상 이획괘에서 발견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의 연구는 사유패턴이라는 내용과 문법적 측면이라는 형식의 양면에서 모두 음양적 대립 내지는 더욱 세분화된 사상(四象)의 특질이 발현되어 있음을 밝히는 작업이다.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y of thinking in the Far East and  
the Europe revealed by analyzing translations between the  
Korean and French

- with regard to Yin-Yang and the trigrams of Sasang-

Oh, Jungmin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There has not yet been a study based on the *Book of Changes* and its Yin-Yang and Sasang on the difference between European languages such as French and Asian languages such as Korean. So our study would compose a new sciences where Yin-Yang and Sasang are applied to linguistics to better explain the linguistic phenomenon. The annihilation of the ego characterized in Korean corresponds to the upper part of the bigram of Sasang, which is signed by Yang and form Soeum, whereas, the strong notion in regard to the ego is reflected in the upper part of the bigram of Sasang, which is signed by Yin and form Soyang. The lower part of the bigram of Sasang 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an enunciator and his interlocutor. We have also elucidated the linguistic elements that correspond to the nature of Soeum, Tai-eum and Soyang, Taiyang in both Korean and French in comparing the way an expression could be better translated in the other language. Our study concerns the intuition as well as the logical argument on the phenomenon of languages by locating the nature of Korean and French in the bigrams of the *Book of Changes*.

**[Keywords]** Yin-Yang, Sasang, French, Korean, ego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10일 / 논문심사일: 2021년 12월 5일 /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3일

**[저자연락처]** ocm0510@naver.com